

#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architect who plans the modern time building of Incheon

손 장 원\*      박 정 란\*\*  
Sohn, Jang-Won      Park, Jung-Lan

## Abstract

It extended in the opening after simultaneous strong point flag and to Incheon the building where the designer whom the many modern time building comes to build but becomes known was not many so. The research against these people did not become accomplished and not to be the back author research which analyzes the work propensity which is the possibility of doing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ccomplished there was not a basic of architectural design. The research which it sees it led and khu lu thu the road khey keyl the back the depths data,, it confronted compared to it secured does not become known during that time the multi architect who and the plan office and and and it searched the result of the back which it puts out well! it put to the architects who become known and.

키워드 : 근대건축, 건축가, 인천

keywords : modern time building, architect, Incheon c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개항이후 일제강점기에 걸쳐 인천에는 많은 근대건축물이 세워졌으며 여기에 관련한 설계자의 숫자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인천에 세워진 근대건축물 가운데 설계자가 알려진 건축물은 아주 적어 답동성당을 설계한 코스트(Coste Eugene Jean George), 제임스 존스톤(James Johnston) 별장을 설계한 독일인 건축가 쿠르트 로트게겔(Curt Rothkegel ; 1876~1946)과 구 일본제일은 행인천지점을 설계한 니이노미 다카마사(新家孝正)정도였다. 건축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에 알려진 설계자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설계자가 알려질 정도의 수준 높은 건축물은 적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미미한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성을 들여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구 인천우체국이나 인천부청 청사조차도 설계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를 쓰면서 이 부분을 보다 넓게 접근하고자 했다. 근대기 인천에 건축물을 남긴 건축가와 관련하여 현재 확인된 것들 위에서 언급한 건축가 외에 보오리즈(William Merrell Vories), 오오스미(大隅)건축사무소, 요코카와(横河)공무소 등이 있다. 또한 인천에서 개업한 청송(靑松)공무소(심의권), 고성(古城)공무소(김동진), 죽첨(竹添)공무소(김중희),

계촌(計村)공무소(計村眞郎) 등이 있었으며, 건축가가 아닌 공사담당부서(체신국 경리과 영선계)가 설계자로 표기된 인천조선간이보험건강상담소(내동소재, 1938년 12월 준공)의 경우도 있다.

### 1.2 연구목적 및 방법

건축물은 단지 생활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질 당시의 문화적 가치나 사고방식이 형태나 공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건축물에 표현된다. 또한 도시는 이러한 건축물의 군집에 의해 형성되는 보다 광대한 규모의 것으로 여기에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가 집적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지역이나 국가의 건축물과 도시를 이해하면 그곳의 문화를 상당부분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인천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인천의 건축물과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을 알면 더욱 면밀하게 그 건축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설계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인천지역근대건축물의 유입경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인천에는 많은 종류의 외국건축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진 건축물의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대략 다섯 가지 계통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일본인에 의해 건축된 식민을 위한 건축물

\* 정희원, 재능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조교수  
\* 정희원, 재능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 ②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구미종교계통의 건축물
- ③ 외국인(일본인제외)의 공사관 건축물
- ④ 중국인과 유럽인의 주택
- ⑤ 중국인과 유럽인의 무역회사

유입경로는 건축물의 탄생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빠르게 알아야 건축물의 문화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입경로에 따른 건축물별 특성은 아직 연구가 미진하여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마치지만,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 III. 인천 근대건축물의 설계사들

#### 3.1 크르트 로트케겔(Curt Rothkegel; 羅克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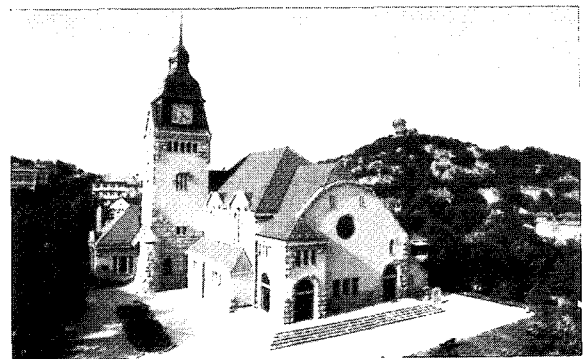
중국인들은 로트케겔을 라극격(羅克格)이라 불렀으며, 그의 직책은 칭따오 독일총독부 건축국 소속 건축기사였다. 그가 설계한 건물 가운데 칭따오의 강소로 기독교당(江蘇路基督堂)과 상하이에 있는 근대절충주의 양식의 국제구락부(Club Concordia; 1912년)가 대표적이며, 칭따오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남아있다고 한다. 칭따오의 강소로 기독교당(江蘇路基督堂) 당시의 독일총독부와 중국인 집단거주지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1908년 로트케겔의 설계가 당선되어 1910년에 준공된 것이다. 인천에 있는 제임스 존스톤 별장(일명, 인천각)은 이 보다 앞선 1903년 시공에 착수하여 1905년에 준공된 건축물이다. 존스톤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상하이에서 크게 성공하였으며 1919년에 사망한 사람이다. 강소로 기독교당은 아직 남아 있지만 인천각이 없어져 자세한 비교는 어렵지만 사진만 보아도 시계탑이나 지붕의 박공부 부분 처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Curt Rothkegel은 북경의 도시개조사업에도 참여한 기록도 나타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뒤 중국에 진주한 일본군은 독일인을 포로로 처리했다.(1917년, 日獨戰爭ノ際俘虜情報局設置並獨國俘虜關係雜纂) 일본은 독일인 포로를 일본취직자, 일본거주희망자, 청도취직자, 청도거주희망자, 자비귀국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Curt Rothkegel은 일본취업자 141명(총원333명) 중 한 사람이다. 또한 일본의 『板東收容所俘虜故國住所錄』에 따르면 로트케겔은 중국 북경에서 체포된 다음 일본의熊本과 久留米를 거쳐 板東 수용소까지 차례로 이동하였다. 또한 독일의 Sagan출신이며, 청도 건설기부부터 건축가로 활동하여 비스 마르크 길 동쪽의 언덕에 지어진 북음교회(공사 기간: 1908-1910)의 설계자, 제3해병대대 공병중대 후비 육군소위라는 기록도 함께 있다. 이 기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포로로 잡은 독일인을 우대했다는 사실을 독일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일본은 국제연맹국이었지만 전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국내에서는 전투가 없었다. 전쟁터는 멀리 두고(즉 큰 희생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의 이익은 가까운 곳에서 얻었다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제임스 존 스텐(James Johnston)별장



강소로 기독교당(中國 青島市)

로트케겔의 제임스 존 스텐별장과 강소로 기독교당은 우선 색상처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벽면의 일부에 거친돌을 사용하여 변화감을 주는 방법, 박공부 및 지붕부 처리 등은 두 건물의 유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3.2 니이노미<sup>2)</sup> 다카마사(新家孝正)

민간부문에서 근대건축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의 한국진출은 1899년에 준공된 일본제일은행인천지점을 설계한 니이노미 타카마사가 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구 일본제일은행인천지점을 설계한 니이노미 다카마사(新家孝

1) E. Seidensticker 저·허호 역, 도쿄이야기 p.297

2) 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니이노미에 타카마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의 성씨를 기록한 사이트인

<http://www.kokemus.kokugo.iuen.ac.jp/names/seishi/SE-14000.html>

에는 新家라는 성을 니이노미(にいのみ)와 니이야(にいや)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창원의 논문(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계민간건축사무소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2호 통권2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에도 니이노미로 기록되어 있다.

3)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해방전후편, pp44-45, 1966 ; 정창원의 논문(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계민간건축사무소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2호 통권23호, p.50,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에서 재인용

正)는 당시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한 건축가이며 일본건축학회의 원형인 조가학회(造家學會)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마쓰(沼津)兵學校의 9기 졸업생으로 원래의 이름은 히코타로우(彦太郎)이다. 병학교가 폐교된 후에는 후에 동경제국대학으로 통합되는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에 입학하여 건축과를 졸업했다. 당시의 공부대학은 대부분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최신의 건축기술을 직접 가르치던 학교였다. 졸업 후에는 궁내성(宮內省), 공부성(工部省), 체신성(遞信省) 등에서 일했으며, 1898년에는 일본근대건축의 비조로 알려진 타츠노 킨코(辰野金吾) 설계의 일본제일은행 본점의 공사감독을 역임하고 그해에 제일은행 나고야지점을 설계했다. 제일은행과의 이러한 인연으로 인천지점을 설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sup> 1914년에는 공학박사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경영하기도 했으며, 도쿄 신주쿠에 있는 코가쿠인(工學院)대학 건축학과의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설계한 구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건물은 얼핏 보아도 근처에 있는 제18은행이나 58은행 건물에 비해 격이 높은 건물임에 틀림이 없다. 니이노미가 일본에서 설계한 건축물 중 비교적 잘 알려진 건축물로는 화족 여학교(華族女學校; 1889년), 일본파노라마관(1890년), 무린암(無隣庵, 1898년)과 무린암 양관(洋館, 1898년), 구 경도우편전신국(舊京都郵便電信局, 1902년), 구 천기은행수호지점(舊川崎銀行水戸支店, 1909년) 등이 있다. 구 제일은행인천지점은 1899년에 세워진 것으로 무린암보다 1년 늦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계한 것이지만 두 건물은 전혀 다르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무린암은 별장이며 제일은행 인천지점은 업무용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천기은행수호지점(舊川崎銀行水戸支店, 1909년)은 같은 은행건물임에도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런데 니이노미가 관여한 건축물 중 상당수가 당시 일본의 궁실 및 지배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신분이나 실력을 추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가 1889년에 설계한 화족여학교는 황족(華族; 華族)의 여자의 교육 기관으로서 마련되어 있던 학교로 궁내성 관할이었다. 1885년 화족여학교로 발족하여 1906년 학습원에 합병되었다가 1918년 독립하고 여자 학습원으로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학습원에 다시 통합된 학교로 현재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다. 무린암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다.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03년에 이 별장의 원래 주인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비롯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가쓰라 다로(桂太郎), 코무라 불타로(小村春太郎)의 4명이 이곳에 모여 러일전쟁 개전 직전에 일본의 외교방침에 관한 회의(無鄰庵會議)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가 시공한 우에노(上野)공원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지붕이 있는 동경국립박물관표경관(東京國立博物館表慶館; 일본국가지정중요문화재)은 일본의 왕이었던 다이쇼(大正)가 황태자시절에 결혼할 당

시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도쿄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이 건물은 지붕의 모양과 화장암으로 마감된 외벽, 그리스식 기둥, 나지막한 패러펫 등에 의해 만들어진 외관은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사라진 구 조선총독부 청사와 아주 유사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구 조선총독부 청사는 독일인인 게오르그 데 라란테(Georg de Lalande)가 설계한 것이다.



무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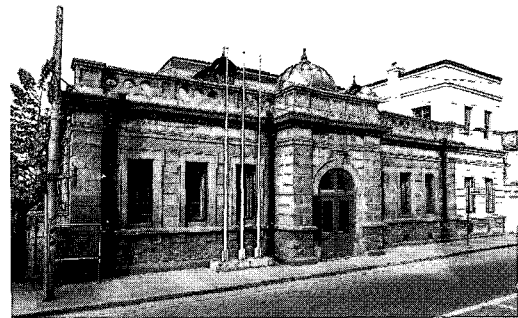
무린암 양관



구 천기은행수호지점



동경국립박물관표경관



구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니이노미는 당시 일본에서는 최상의 건축교육을 받았다. 그가 설계한 건축물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구축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소가 되었고, 일본국 황태자의 결혼기념건축물을 시공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외에도 일본파노라마관도 설계했다. 일본의 파노라마관은 16각형의 목조건축물로 360도의 거대한 내부공간(높이 15. 직경 20m)에 모형과 그림으로 연출된 파노라마를 설치한 것이었다. 입구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와 계단은 어두컴컴한 터널처럼 처리하였고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파노라마 부분은 밝게 처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려 했다고 한다. 이 파노라마관에 전시된 것은 일본무진전쟁(日本戊辰戰爭)<sup>5)</sup>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5) 일본의 무진전쟁은 명치유신 이후 1868년 - 1869년까지 명치정부가 에도바쿠후(江戸幕府)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치른 일본 내전이다. 무진은 1868년의 간지이고 이 전쟁의 결과 명치정부는 사쓰마번(薩

4) 정창원, 앞의 논문, p.50

고 한다. 파노라마관은 1787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파크가 시작한 것으로 이후 파리, 런던, 푸랑크푸르트,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퍼졌으며, 일본에는 약 100년 뒤인 1890년에 파노라마관이 등장한 것이다.

### 3.3 코스트(Coste Eugene Jean George)

코스트는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인 선교사로서 1885년 입국하여 1896년 선종할 때까지 조선교구 부주교로서 명동성당을 비롯한 많은 교회를 건축했고, 한불사전을 비롯한 30여권의 한국어 책을 발간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한국천주교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1842년 프랑스 남부 Montpellier시 부근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거쳐 1866년 파리의방전교회에 입회하여 1868년 사제서품을 받고 극동 아시아로 파견되었다. 그로부터 2년간 홍콩에서 부 경리계직을 맡은 다음 1870년 싱가포르에서 2년 동안 요양소건축을 담당했으며, 1872년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 Bethanie 요양원건설에 종사함으로써 건축적인 재능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련의 건축물을 설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다. 1874년 상해의 경리부를 맡으면서 조선포교를 승인받아 이후 10년간 주변에서 조선입국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코스트신부는 이 기간 동안 만주, 일본을 진전하면서 한불사전의 완성을 위한 한국어의 활자를 주조하는 등 인체에 관여하였다. 당시 한국어 활자는 코스트 신부의 설계로 처음 주조된 것이며 이후 각 인쇄소에서 사용된 활자들은 그가 창안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 1885년 조선입국 후 1886년에 체결된 한불조약으로 프랑스인에 의한 토지구입 및 교회건축이 자유롭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건축에 참여한다.<sup>6)</sup> 이후 코스트 신부는 명동수녀원 및 고아원(1888-89년), 명동성당주교관(1889-90년), 용산신학교(1891년), 약현성당(1891-1892년), 인천수녀원(1893-1894년;소실), 인천바로로성당(1894-1897년), 명동대성당(1892-1898년)을 차례로 설계하거나 건축에 참여한다. 물론 코스트신부가 위에 언급한 모든 건축물



인천바로로성당  
 摩蓄)과 초슈번(長州蕃) 출신이 주체가 되어 근대적인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6) 김정신, 한국에서 활동한 2인의 성직자 건축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4호, 1988

에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측 사진의 인천 성바로르 대성당은 1930년대에 이르러 Maraval 신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확장개축된 모습이며, 원래는 뽀족한 첨탑을 가진 로마네스크양식이었다고 한다.

### 3.4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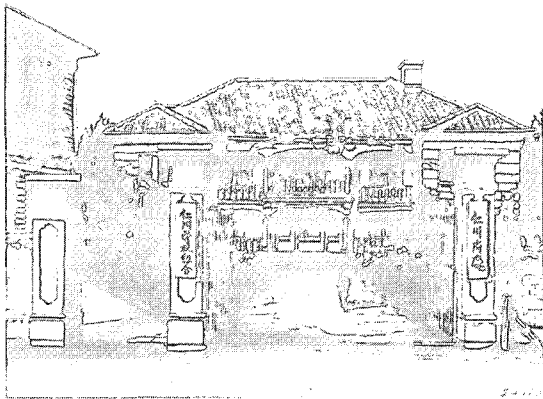
도쿄 시바다카와(芝高輪)출신인<sup>7)</sup> 그는 본업이 건축업인 사람으로 1880년에 원산영사 마에다(前田)을 따라 원산으로 가서 건축업을 시작해 2년간 관공서와 민간건축 사업에 종사하다가 1882년 인천으로 이주한 뒤 2년간 해군에 물품을 조달하다가 1883년 중정(仲町, 현;관동) 2번지 일대의 토지를 불하받아 1884년 3월 주택을 신축하고 영사관 건축에 참여하였다. 1885년에는 경성영사관을 건축하였고, 1894년 일본소학교(1908년 당시에는 민단사무소로 사용됨)를 건축한 뒤에는 건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한 인천소방대 조직에도 깊이 관여하여 소방대장을 맡기도 했으며, 1891년에는 아사오카루(淺岡樓)라는 요리점을 개업했고, 1904년에는 시키시마(敷島)유곽에 아사오카루(淺岡樓) 지점을 개설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였다.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가 건축에 관여한 건축물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근대건축의 흐름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개항이후 개항장의 외국인 거류지에 세워진 서양식건물들은 외국인이 지도를 받은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와 같이 서양식 건축을 접한 일본건축기술자가 생기기 시작하여 요코하마 거류지 등에서 건축을 배운 일본목수들에 의해 세워진 영국공사관이나 호텔들은 도쿄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다. 이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사용하여 서양인의 필요나 감각에 맞는 설계를 하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일컬어 일본에서는 개항이후 1870년대까지를 외국인건축가의 시대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민간에서는 서양건축기술 섭취의 첫 단계로 '유사서양풍(類似西洋風)'으로 성장한다.<sup>8)</sup> 영국인 건축가로 고부(工部)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친 콘더(Josiah Conder)가 일본의 근대건축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879년에는 콘더(Josiah Conder)에 의해 본격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 4명이 배출되었다. 또한 이때에 이르러 미국과 프랑스에서 건축유학을 마친 일본인 건축가가 귀국하여 1880년대부터는 일본인에 의한 본격적인 서양식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메이지 중기이후 이 콘더의 제자들이 다시 일본건축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7) 한편, 같은 해에 발간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주역 인천개항25년사(信夫淳平 저, 1908년), p.138에는 야마구치켄(山口縣)출신으로 기록되어있다.  
 8) 윤인석, 일본의 근대화과정과 일본근대건축의 변천과정, pp.11-13

1890년에 완성된 최초의 제국호텔을 세웠고, 메이지 후반에서 다이쇼 초반에 세워진 주요한 건축물인 니혼(日本)은행, 아카사카(赤坂)이궁, 도쿄역 등을 세우게 된다.<sup>9)</sup> 즉, 인천이나 부산에 영사관을 세우던 1883~4년경에는 일본도 서양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양식건축을 모방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사관 건축에 참여한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는 목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설계에 관여했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천개항25년사’는 加瀬和三郎의 것과 信夫淳平의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에 대한 내용은 加瀬和三郎의 것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많다. 따라서 이 글은 두 권의 책 가운데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의 내용은 주로 인천개항25년사 중 加瀬和三郎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 책에서 확실히 다른 점은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의 출신지이다. 후쿠오카 리기치(福岡利吉)의 출신지를 加瀬和三郎의 기술에 따라 도쿄시바다카와(芝高輪)로 기술한 것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화재가 빈발하였던 당시 도쿄에는 소방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주로 목수였다<sup>10)</sup>는 점과 함께 그 내용의 상세함도 함께 감안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인천부청을 묘사한 그림

### 3.5 인천에서 활동한 설계사무소

일제강점기의 인천에서 개업한 건축설계사무소로는 청송(靑松)공무소(심의권), 고성(古城)공무소(김동진), 죽점(竹添)공무소(김중희), 계촌(計村)공무소(計村眞郎) 등 4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계촌(計村)공무소를 운영한 計村眞郎만이 일본인이고 나머지 3인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들의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심의권은 서울전기공업학교, 김동진은 서울공업학교, 김중희는 일본 오사카제도학교

9) E. Seidensticker 저·허호 역, 도쿄이야기, pp.90-92  
10) E. Seidensticker 저·허호 역, 앞의 책,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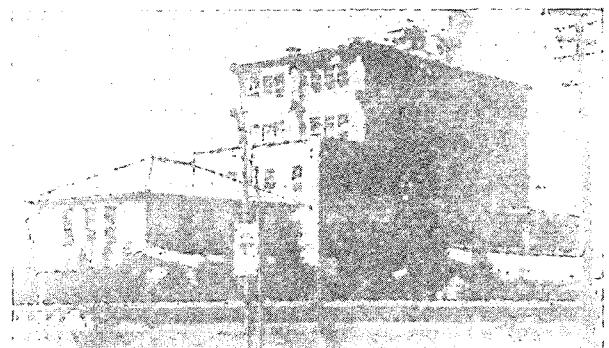
(大阪製圖學校) 출신이었다.

이 당시 허가관서는 인천경찰서 건축계이며, 건축주임은 북미(北尾), 차석은 산전(山田), 담당은 김양규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도 심의권은 청송공무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했고 김동진은 대성공무소, 김중희는 합동공무소로 사무소 명칭을 달리하여 활동을 계속했다. 아울러 김남규는 계촌(計村)공무소를 인수하여 인천(仁川)공무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다.<sup>11)</sup>

인천에서 활동하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알려진 것이 없어 아쉽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인천에서 활동한 이 세 사람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인천지역 건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들의 후손이나 인천지역원로건축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 3.6 기타

오오스미(大隅)건축사무소의 동경지포전기공업회사(東京芝浦電氣工業會社) 인천공장과 중연공업주식회사(鐘淵工業株式會社) 인천공장, 요코카와(橫河)공무소의 일본제분 인천공장(1935년) 등이 있다. 오오스미(大隅)건축사무소는 1934년 서울에 개설한 사무소이며, 요코카와(橫河)공무소는 1903년 일본에서 개설된 사무소이다. 1903년 당시에는 일본도 민간건축사무소 체제를 갖추고 있던 사무소는 타츠노 카니시사무소와 요코카와(橫河)공무소 두 곳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무소가 인천에 건축물을 남기게 된 것은 일본대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른 것이다.



일본제분 인천공장(1935년)

한편 이화여대 음악당을 설계한 보오리츠(Willam Merrell Vories)는 미국인이지만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활동한 건축가이다. 보오리츠가 1920년 출장 시 인천에서 설계의뢰를 받았다는 기록이<sup>12)</sup> 있지만, 어떤 건물을 설계

11) 허집, 인천건축사10년사,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직할시건축사회, 1993, p.69

12) 山形政昭, 東アジアに廣がるヴォーリス建築, 松村先生退任記念會, 1985年; 정창원의 논문(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계민간건축사무소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2호 통권23호, p.58, 한국

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건축가는 아니지만 조계지측량을 담당하고 이후 서울에서 덕수궁 석조전<sup>13)</sup>과 독립문 건축에 관련한 러시아 토목기사 사바틴도 근대인천의 모습을 만드는 데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하나이다.

## V. 결론

개항이후 일제강점기에 걸쳐 인천에는 많은 근대건축물이 세워졌지만 설계자가 알려진 건축물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설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작품성향을 분석하는 등 작가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크르트 로드케겔 등 알려진 건축가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건축가와 설계사무소를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의 작가연구나 작품연구 부분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인호 · 강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001
2. 고 일, 인천석금(윤문본), (사)해반문화사랑회, 1999
3.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 2000
4. 김양수, 인천개화백경, 화인재, 1998
5. 김정동, 김정동교수의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2000
6. 김정신, 한국에서 활동한 2인의 성직자 건축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4호, 1988
7.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8. 노형식,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생각의 나무, 2004
9. 신용석, 개화기 사진엽서를 통해 본 인천의 모습과 우리의 풍습(전시도록), 1991
10. 신태범, 인천 한세기, 한송, 1996
11. 이기성, 인천상공회의소 백년사, 인천상공회의소, 1986
12. 오종원 외, 간추린 인천사, 인천학연구소, 1999
13. 이흥우, 열려있는 땅 인천전(전시도록), (사)해반문화사랑회, 2000
14. 이흥우, 답사자료집, (사)해반문화사랑회, 2000
15. 인천광역시, 개항기근대건축물 보전 및 정비방안(제2차중간보고서), 2001
16. 인천광역시, 근대문화유산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

건축역사학회, 2000)에서 재인용

한편, 윤일주의 앞의 책 p.136의 기록에 의하면 오사카(大阪)에 술대학은 Willam Merrell Vories 작품 대부분의 목록과 원도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13) 설계자는 당시 중국 상해에서 활동 중이던 G, R Harding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주역 인천사정((靑山好惠 著, 1892년), 2004
1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주역 인천개항25년사(加瀬和三郎 著, 1908년), 2004
1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주역 인천개항25년사(信夫淳平 著, 1908년), 2004
20.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조성기본계획, 2003
21. 전진삼, 조리개속의 도시 인천, 시공문화사, 2005
22.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사)해반문화사랑회, 2002
23. 최재용,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다인아트, 2003
24. 湯本豪-- 著, 일본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25. 터사랑, 인천땅 이만큼알기, 다인아트, 2005
26. 片山和俊 著 · 전진삼 역, 도시탐험-성의 체험, 국제, 1991
27. 허 집, 인천건축사10년사,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직할시건축사회, 1993
28. 홍기표, 내리백년사,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인천내리교회, 1985
29. E. Seidensticker 著 · 허호 역, 도쿄이야기, 이산, 1997
30. Andrew Gordon 著 · 김우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2005